

문화



■ 광주일보·시립미술관 현대미술과 인문학 강좌 9탄

“이미지를 통해 공유하는 시대
작품 속에서 함께 즐기며 이해해야”

전북대 심혜련 교수 ‘이미지와 매체 그리고 디지털 매체예술’

독일 사상가 발터 벤야민은 이미 1920년대에 “글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이 문맹이 아니라 이미지를 읽지 못하는 사람이 새로운 문맹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매체의 발달로 이미지 홍수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요즘, 의미 있는 강좌가 광주에서 열렸다.

지난 15일 오후 3시, 광주시립미술관(관장 박지택)·광주일보 주최 ‘현대미술과 인문학’ 강좌가 열린 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에서 150여명의 수강생들이 몰려 강의를 경청했다.

이날 강좌에서는 전북대 과학학과 심혜련 교수가 ‘이미지와 매체, 그리고 디지털 매체 예술’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심 교수는 플라톤, 발터 벤야민, 칸터 안더스 등 이미지를 연구한 수많은 철학자와 미학자들의 사상을 예로 들어 이미지의 다양한 양상을 진단했다.

특히 제8회 광주비엔날레(11월7일)가 인류가 만들어 낸 수많은 이미지의 탄생과 일생을 보여주는 ‘만인보’를 주제로 삼았기에 이날 강좌에 참여한 수강생들

의 관심과 열기가 더욱 뜨거웠다.

심 교수는 “플라톤을 비롯한 많은 철학자들이 이미지는 실재(원형)가 아닌 꾸며진 허상(모사)이라고 지적했지만, 현대는 본질이 아닌 이미지를 통해 사유하고 판단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이미지가 본질에 접근할 수 없게 하는 과정을 최근 관심을 끈 ‘철레 광부 구조’ 사건을 통해 설명했다. TV와 신문, 사진 등을 통해 철레 광부들의 영웅적인 이미지만 각인되고, 그 이미지 뒷면에 숨어있는 광부들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삶이 감춰져 있다는 것이다.

반면, 사진과 영화를 통해 이미지 영역에 대한혁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미지를 꾸미고 이미지로 파악하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미지에 새로운 존재론적인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지를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기 보다는 제3의 존재로 인정하고, 사물과 다른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논의들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는 현대 미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미지에 매몰되지 말고, 매체와 매체를 통해 어떤 방법으로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는지에 대해 먼저 관심 갖기를 주문했다.

“현대에 등장한 디지털 매체예술은 생산과 수용이라는 구분 자체를 없애 예술가와 관객의 경계를 허물고 있어,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작품이 많은데 적극적으로 작품 속에서 함께 즐기며 이해하면 됩니다.”

‘발터 벤야민의 매체철학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심 교수는 ‘사이버스페이스 시대의 미학’ 등 다양한 미학관련 서적을 펴낸 매체미학 전문가다.

한편 ‘현대미술과 인문학’다음 강좌는 내달 19일 김선정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를 초청해 ‘미디어시티 서울에서 본 도시와 비엔날레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열린다. 수강료는 무료, 선착순 150명 입학이 가능하다. 문의 062-613-5392.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지난 15일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에서 열린 ‘현대미술과 인문학’ 강좌에 참여한 수강생들이 심혜련 교수의 강의를 듣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2010광주국제공예예술제에서는 러시아 연극 ‘스톱’ 등 다양한 작품이 공연됐다. 아외 공연 ‘고래의 꿈’의 모습. /김진수기자 jeans@

■ 막 내린 광주국제공예예술제

수준 높은 16개 공연 1만여명 찾아
대중적 작품 부족... 시민참여 숙제로

광주시에 (재)광주공예예술재단이 주최한 2010광주국제공예예술제(이하 예술제)가 지난 16일 러시아 극단의 ‘스톱’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16개 작품이 공연된 예술제에서는 수준높은 작품들이 공연돼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번 예술제에 다녀간 관객은 1만여명(아외 공연 제외)으로 지난해에 비해 5000여명 정도 줄었다.

▲러시아 연극 등 성찬 만끽
‘상업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예술제의 장점은 쉽게 접할 수 없는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는 점이다. 광주에서 첫 선을 보인 러시아 푸시킨 시아터의 ‘스톱’이 대표적. 자막을 봐야하는 번거로움에 3시간 가까이 계속돼 수고도 필요했지만 사랑과 인생이라는 보편적인 정서에 호소하는 작품이라 관객 수가 그리 많지는 않았어도 의외로 몰입도는 좋았다. 특히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무대 장치 등이 인상적이었다.

또 세련된 무대와 예사롭지 않은 몸동작을 보여준 전미숙 무용단의 ‘울지 마세요’, 영상과 몸짓이 어우러진 쿠바 무용단의 ‘말손’도 눈에 띄는 작품이었다.

예술제가 단순히 작품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생 기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7개국의 예술가들이 참여한

‘내 창문을 두드리는 전쟁’과 ‘내 이름은 오텔로’도 인상적이었다. 광주 배우나 스태프의 참여가 적어 ‘노하우’를 함께 나눌 수 없었던 점은 아쉬웠지만 시도는 주목할 만했다. 또 정을성을 소재로 한 창작 발레 ‘소재의 바이올린’ 역시 의미있는 행보였다.

다소 어려운 작품들이 있었음에도 관람태도는 의외로 좋았고 올해 처음 도입된 하우스 매니저들도 제 역할을 다했다.

▲관객층 다변화 필요

이번 예술제는 클래식 프로그램이 정음성곡제음악제로 넘어가면서 관객 동원에는 한계가 예측됐었다. 지난해 최고 흥행작이 리차드 용재 오닐, ‘투란도트’ 등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예상할 수 있는 점이었다.

순수예술 행사에 ‘관객숫자’의 잣대만을 들이대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번 예술제는 시민 참여에 대한 숙제를 남겼다. 공연작의 티켓 가격은 1만원~2만원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저렴했고 할인 혜택도 많았다. 하지만 관객수는 훨씬 적었다.

이번 예술제에서 ‘여러 작품’을 보는 매니아층도 눈에 띄었고, 일단 공연 감상한 후 좋은 평가를 내리는 관객들은 많았다. 문제는 공연장으로 ‘일반’ 관객을 끌어들이기가 어렵다는 점. 모든 작품이 그럴 필요는 없지

만, 관객의 구미를 당길만한 ‘대중적인 작품’과 ‘화제작’을 배치하거나,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작품으로 색선을 꾸리는 등 다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봄을 조성하기 위해 배치한 아외공연은 별 의미를 찾기 어려웠다. 옛 전남도청 일대에서 열린 ‘고래의 꿈’의 경우, 이 작품을 공연예술제와 연관짓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리플릿을 나눠주는 등 홍보도 없었다. 오히려 도심에서 산발적으로 펼쳐진 게 아니라 특정 극장이나 장소에서 ‘집중적’으로 작품을 상연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었다.

▲2011년 행사 준비 서둘러야
예술감독이 행사 시작 4개월전에 선정되는 등 해마다 반복돼 왔던 ‘준비 부족’은 올해도 어김없이 재현됐다.

특히 내년 행사는 새로 출범하는 문화예술재단이 진행할 것으로 보여 다시 밑그림을 그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준비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또 1년에 한 차례 축제를 치르는 데 그치지 않고, 공연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강숙자 오페라라인 공연 21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사)강숙자 오페라라인의 ‘오페라 하이 라이트’ 공연이 오는 21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이날 공연에서는 오페라 ‘노르마’ 중 ‘정결의 여신’, ‘세빌리아의 이발사’ 중 ‘방금 그 노래 소리는’, ‘마리자 백작부인’ 중 ‘집시여 내게 오라’, ‘라 트라비아타’ 중 ‘축제의 노

래’를 비롯해 ‘안드레아 세니에’, ‘마술피리’ ‘오텔로’, ‘르 시디’ 등 유명 오페라의 삽입곡을 들려준다.

연주자는 강숙자·오송하·이현숙·고수연·이경은·신재희·김성미·남보라·김현복·김홍수·마명준·조규철씨 등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보문고 신입생모집
10월20일~25일 원서접수

- 대한민국 최고의 선생님을 모십니다.
- 전국 최상위 특목재단!
- 전교생수용 최첨단 명품 기숙사 신축
- 보다 특목입학 장학금 제도!
- 2009 교과부 선정 영어리더 학교!

- 준비된 자율형 사립고 -
보문고등학교
입학 문의 062) 940-8800

www.geumsoojang.com

내집같은 편안함!

광주에는 금수장관광호텔이 있습니다.

금수장관광호텔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객실요금 4만원부터

★당첨 있습니다. 4-5만원대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

★편리합니다. 광주역에서 도보 7분, 광주고속터미널 차편 15분 거리 전남대, 조선대, 교대, 아시아문화전당(구도청), 예술의거리, 충장로 등 시내 주요 거점이 10분거리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이 인접한 객실 Free Wifi, 비즈니스센터, 한식당, 커피숍, 와인바, 연회 등 다양한 부대시설

★편안합니다. 한담 한담 직접 웨어어 정성껏 준비하는 깨끗한 침구 가족, 여행객, 비즈니스, 출장객의 주요 고객

movieholic 영화에 빠지다

영화와 함께!!

| | | | | | |
|---|---|---|--|--|--|
| <p>오우성 정우성 2010 금로벨프렌드</p> <p>상무점</p> <p>1관 방가?방가! (12세)</p> <p>2관 레터스 투 줄리엣 (12세)</p> <p>3관 시라노-연예조작단 (12세)</p> <p>4관 경우강호 (15세)</p> <p>5관 22블렛 (18세)</p> <p>6관 무적자 (15세)</p> <p>7관 해결사 (15세)/심야의FM (18세)</p> <p>8관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15세)</p> <p>9관 적인결-촉천무후의 비밀 (12세)</p> <p>10관 심야의FM (18세)</p> | <p>항토시랑! 영화시랑! 매일 심야성영 / 호남최대주자랑 / www.cinus.co.kr</p> <p>3D디지털 상영! 상무점, 하남점 동시개봉!!</p> | <p>아남점</p> <p>1관 심야의FM (18세)</p> <p>2관 경우강호 (15세)</p> <p>3관 심야의FM (18세)</p> <p>4관 슈퍼베드 (전체)/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15세)</p> <p>5관 방가?방가! (12세)</p> <p>6관 22블렛 (18세)</p> <p>7관 시라노-연예조작단 (12세)</p> <p>8관 경우강호 (15세)/시라노-연예조작단 (12세)</p> <p>9관 레터스 투 줄리엣 (12세)</p> <p>10관 적인결-촉천무후의 비밀 (12세)</p> | <p>MEGABOX</p> <p>최고급관</p> <p>M관 심야의FM (18세)</p> <p>2관 적인결-촉천무후의 비밀 (12세)</p> <p>3관 경우강호 (15세)</p> <p>4관 22블렛 (18세)</p> <p>5관 심야의FM (18세)</p> <p>6관 방가?방가! (12세)</p> <p>7관 시라노-연예조작단 (12세)</p> <p>8관 레터스 투 줄리엣 (12세)</p> <p>9관 시라노-연예조작단 (12세)</p> <p>영원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p> <p>● 호남주자타워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저시 정상요금 부과</p> | <p>CINUS</p> <p>북구보건소 건너편</p> <p>☎ 1544-0070, 511-1000</p> | <p>1관 시라노-연예조작단 (12세)</p> <p>2관 적인결-촉천무후의 비밀 (12세)</p> <p>3관 경우강호 (15세)</p> <p>4관 방가?방가! (12세)/무적자 (15세)/아저씨 (18세)</p> <p>5관 22블렛 (18세)</p> <p>6관 레터스 투 줄리엣 (12세)</p> <p>7관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15세)</p> <p>8관 심야의FM (18세)</p> <p>색깔있는 영화선책 ● www.cinus.co.kr</p> <p>씨너스전대3D(4K)상영!!</p> |
|---|---|---|--|--|--|